특별기고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橃)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6)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충재 선생이 늙으신 부모 봉양과 함께 도학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조광조 중심으로 김정과 김식 그리고 김구 등과 주장과 그 뜻에서는 충재 선생도 같았다. 하지만 선생을 비롯한 김안국, 김정국들은 조광조 등의 독단적이고 시의(時宜)를 감안하지 않는 급진적이며 강경한 개혁추진 처사와 훈구척신(勳舊戚臣) 일파에게 교만하게 대척하는 데에는 일정하게 반대하며 조정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이들이 듣지 않았다. 선생은 고향 안동과 가까운 외직을 청하여 기묘년(1519년) 6월에 삼척부사로 떠나간 것과 7월에 도승지의 수망에 오른 그 때의 전후 사정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을 잠시 상고한다면,

중종 35권, 14년(1519) 기묘 / 명나라 정덕(正德) 14년) 4월 16일(기묘) 1번째 기사 : 예조 참판(禮曹參判) 권벌(權橃)이 아버지의 나이가 71세요 또 풍병(風病)이 있다는 것으로 돌아가 봉양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벌(橃)이 간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정에 인물이 많지 않으니 경과 같은 사람은 진실로 귀양(歸養)을 윤허할 수 없으나, 경의 마음이 간절하고 효(孝)로 다스리는 정치에 있어서도 마땅히 먼저 할 일이라서 특별히 윤허한다."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권벌의 귀양(歸養)할 뜻이 지극히 간절하므로 윤허한 것이다. 뒤에 그가 사는 가까운 곳의 수령(守令) 자리가 비거든 벌(橃)을 차임하도록 하라."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벌은 안동(安東) 사람으로 시망(時望)이 있었는데, 귀양하기를 빌자 선비들이 아름답게 여겼다.

우찬성 이장곤(李長坤) 임금께 아뢰기를 "근자에 효도로써 다스리기를 앞세우시기 때문에, 무릇 돌아가 부모 봉양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소원대로 들어주시니 이는 진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옛 예에 어버이의 나이 90이라야 모든 아들이 봉양하러 돌아갔었고, 80이나 70에는 각각 차등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권벌이 어버이가 늙었다는 것으로 삼척(三陟)에 보임(補任)되기를 바랐는데, 벌의 어버이 나이 70이 되지 못하였고(사실은 부친이 71세였다) 또한 봉양할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벌처럼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은 구득하기 쉽지 않으니 봉양하러 돌아감을 윤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하니, 상(上 : 중종 임금)이 이르기를, "벌이 어버이가 늙기 때문에 봉양하러 돌아가기를 바라되, 그의 말이 매우 간절하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였다.

중종 36권, 14년(1519 기묘) 7월 20일(신해) 1번째 기사 :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이자(李耔)가 채경(蔡京)의 일 논함을 인하여 아뢰기를, "임금이 소인을 대우할 적에는 마땅히 엄정(嚴正)하게 하여 체면을 볼 것이 없지만, 대신을 진퇴(進退)시킬 적에는 체면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을 진퇴시킬 적에는 마땅히 체면 유지를 해주어야 한다."하매, 이자가 아뢰기를, "그다지 관계가 있는 일도 아닌데 경솔하게 진퇴시킴은 불가합니다."하고, 한충(韓忠)은 아뢰기를, "이자가 아뢴, 대신 대우에 관한 말은 곧 당면한 지금의 폐단을 생각하여 한 말이니, 만일 함께 도(道)를 논하여 나라를 경륜(經綸)해가는 대신이라면 분주하게 일을 맡는 신하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시황(秦始皇)이 대신을 억압하여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게 했었는데 그 버릇을 후세에 와서도 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대신 대우도 혹 과실이 있으면 견책이 너무 엄하여 대신의 체면 유지에 합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요사이 행행(行幸) 때면 대신이 수레 먼지와 말발굽 사이를 분주히 쏘다니며 일보게 되는데 이도 체면에 불가한 일입니다."

중종 36권, 14년(1519) 기묘 7월 25일(병진) 2번째 기사 : 도승지를 체직하게 되자, 이조가 권벌(權橃)을 수망(首望)으로 주의(注擬)하고 유인숙(柳仁淑)을 차망(次望)으로 주의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벌이 늙은 어버이를 봉양하러 가겠다고 정사(呈辭)하므로 이미 삼척 부사(三陟府使)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마땅히 조정에 있어야 하고 지방관으로 내보냄은 합당치 못합니다. 경연에서 대신도 말한 일이 있었고, 또한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도승지를 삼은 전례가 있으므로 주의했습니다."하니,

이때에 상이 이르기를, "권벌은 비록 승지에 합당하지만 어버이에게 돌아가 봉양하기 위한 정의(情義)가 간절하기에 이 외임(外任)을 제수했고, 또한 가당한 사람이 없지 않으니,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어 어버이에게 효도하려는 뜻을 저지할 것이 없다. 유인숙으로 승지를 삼으라." 하였다.

충재 선생에 대한 당시 실록 기사에 나오는 관련 인물을 앞서 소개한 이를 제외하고 간단히 상고한다면, 이장곤· 채경(北宋)· 한충·유인숙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이다. 이것은 조선왕조의 기묘사화(己卯士禍) 전후의 개혁정치와 중국 북송시대 신·구법당의 개혁정치의 유사한 점과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충재 선생의 중앙조정에서의 정치적 안목과 외직으로 나아가 삼척부사로 재직 당시 유교의 민본적 정치사상에 입각한 현실적이고 후일 실학적 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방안과 제도개혁을 살펴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북송시대 왕안석(王安石)의 개혁정치와 사마광(司馬光)과 태황태후 고씨(高氏)등 황실 외척(外戚)의 보수파 정치의 관계 그리고 조광조 등의 도학적 개혁정치가 훈척파의 갈등과 실패의 관계 및 원인과 결과를 대비해 보는 것도, 요즈음 현실과 별 차이가 없는 시의적절하다(?)는 점에서 상고해 볼 만하다.

이장곤(1474년-1519)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자는 희강(希剛), 호는 학고(鶴皐), 금헌(琴軒), 금재(琴齋), 우만(寓灣), 시호는 정도(貞度)이며 본관은 벽진이다. 참군 이승언의 아들이자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으로 1495년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1502년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했다. 1504년 교리로 있던 중 갑자사화(甲子士禍)에 휘말려 거제로 귀양 갔으나 함흥으로 도주하여 양수척(楊水尺)의 무리에 끼어 살면서 목숨을 부지했다. 1506년 중종반정 이후 박원종(朴元宗)의 추천으로 다시 관직에 임명되어 교리와, 장령, 동부승지 등을 역임했으며 학문과 무예 모두 겸해(문무겸전文武兼全, 출장입상出將入相의 인물) 중종의 큰 신임을 받았다.

(다음호에 계속)

정문 충렬공 권순장

▣ 仁山 權 寧 赫(中央宗親會副會長)

〈지난호에 이어〉

공을 충실이 섬기던 종 의남(義男)이 시신을 찾아서 목비(木碑)를 세워 표하고 그 자신도 자결 하였다.

한편 송정촌(宋亭村)에서 난을 피하고 있던 공의 부인 이씨(李氏)는 공이 분사(焚死)하였다는 말을 듣고 운명을 함께 하기로 하니, 공의 세 딸과 두 아들이 먼저 죽은 다음 부인도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또 공의 두 아우 순열(順悅)과 순후(順厚)가 죽고, 종수(從瘦)인 소씨(蘇氏), 이씨(李氏), 장씨(張氏)가 죽었으며, 종 의남(義男)의 여매(女妹)의여(義女) 역시 죽으니 일가 10명이 한꺼번에 순절하였다.<인조실록(仁祖實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권순장은 참판 진기(盡己)의 아들이다. 김 익겸등과 다 함께 남루(南樓)에서 피하기를 권하고 자분(自焚)하는 김 상용(金尙容)의 말을 듣지 않고 동사(同死)하였다.

또한 <난리집기(亂離雜記)>에는 당시의 순절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성이 장차 함락되려 하니, 상용(尙容)은 이미 일이 틀렸음을 알고 마침내 가인(家人)들과 작별하고 입었던 옷을 벗어 하인에게 부탁하고 이르기를, "네가 만일 살거든 이 옷을 내 아이들에게 전하여 뒷날 허장(虛葬)하는 제구로 쓰도록 하라."

하고 곧 남문으로 가서 화약 상자에 걸터 앉았다. 윤방(尹昉)이 문하(門下)에 와서 말하기를,

"상공(相公)은 반드시 죽으려 합니까. 죽으려거든 나도 또한 함께 죽겠습니다."

하였다. 상용이 말하기를,

"꼭 죽을 필요가 있겠나."

하니 방(昉)은 곧 지나가 버렸다. 상용이 시인(侍人)에게 이르기를,

"가슴이 답답해서 담배를 피우고 싶으니 불을 가져 오너라."

하였다. 시인은 상용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음으로 불을 가져오지 않았다. 상용이 재촉하더니 이내 손을 내저으며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멀리 가게 하였다. 이때 권순장과 김익겸이 말하기를,

"상공은 홀로 좋은 일을 하시렵니까."

하면서 그들은 끝내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상용이 드디어 상자 속에 불을 던지니 사람들과 문루가 폭발하는 바람에 모두 날리어 흩어져서 보이는 것이 없었다.

당시 살육이 무상하고 자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으나, 집단 순사로써 충절을 보이기로는 공익 가인들의 으뜸이었다.

그래서 강화 유수 윤이지(尹履之)가 계하여 가로되,

"절의한 사람이 많은 것은 권씨가 최고였다.[節]義之多權家爲最]"

라고 하였다. 공은 순절 후 인조조에 지평(持平)으로 추증되는 동시에 나라에서는 그 자손을 녹용(錄用)하였다. 그리고 숙종조에는 이조 판서, 좌찬성으로 추증되고, 충렬(忠烈)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강화(江華) 충렬사(忠烈祠)에 배향(配享)되었으며, 영조(英朝)는 정려(旌閭)를 내리고 정조(正祖)는 부조전(不祧典)으로 치제(治祭)케 하였다.

정부인 전주이씨는 동지중추부사 구원(久源)의 딸이며 정숙하며 지극한 행의가 있었는데 순절(殉節)로서 졸하니 정려가 내렸다.

참고:전주이씨 시조:신라때 사공(司空)을 지낸 이한(李翰)이다. 태조 이성계(太祖 李成桂)는 시조로부터 22세 즉 한(翰)의 21대 손이다.

지평공 권순열(持平公權順悅)

충렬공(忠烈公) 순장(順長)의 아우인 권순열은 진사를 하였으며 인조 14년, 1636년 병자에 호란이 일어나 일가족이 강화로 파란하였으나, 성이 적에게 함락될 때 급히 달려가 노모(老母)를 구한 다음, 백씨 충렬공(忠烈公) 순장(順長)이 분사한 것을 알고 자결하였다. 지평으로 추증 되었고 정려가 내렸다.

순절공(殉節公) 권순후(權順厚)

순열(順悅)의 아우로,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 강화에서 백씨 충렬공(忠烈公) 순장(順長)과 함께 순절(殉節)하니 정려가 내렸다.

권처자(權處子)

충렬공(忠烈公) 순장(順長) 순열(順悅), 순절공(殉節公) 순후(順厚) 삼형제의 매씨(妹氏)가 된다.

병자호란이 일어나 강도로 피란 갔다가 나이 13세 어린 나이에 세 오빠의 순절(殉節) 소식(消息)을 듣고 순절(殉節)하였다. 나이 겨우 13세 꽃이 피지도 못한 꽃 봉우리 어린 나이에 순절(殉節) 했으니 정려(旌閭)가 내렸다.

정부인 진주소씨(晉州蘇氏權順久婦人)

순구는 목사 박(博)의 현손이며 승지공 송재(宋齋) 책기(責己)의 둘째 아들이다.

광해주 10년, 1618년 무오에 출생하여 통훈대부 사헌부 감찰을 역임했다.

병자년 [1636]에 척화(斥和)하고 벼슬을 그만 두었는데 뒤에 이조 참의로 추증되었고 진주소씨는 현문(顯門)의 딸인데 이조 15년, 강도로 피란하였다가 정월 25일 종동서(從同壻) 3인과 함께 순절(殉節) 하나 정려(旌閭)가 내렸다.

권순정(權順正)자는 수지(受之) 부(父)는 월포공(月浦公) 경기(儆己), 조부(祖父)는 풍담공(楓潭公) 극중(克中), 증조(曾祖)는 월담공(月潭公, 黃海監司) 덕여(德輿). 고조(高祖)는 목사공(牧使公) 박(博). 5대조는 참의공(參議公) 령(齡).

선조 40년 1607년 정미 7월 13일에 태어나 현종5년 1664년 갑진 6월 20일 졸하였는데 이조 참의로 추증되었다.

증 숙부인 전의이씨(權順正婦人)

증 정부인 전의 이씨는 병사(兵使) 언척(言惕)의 딸로 선조 41년, 1608년 무신에 출생하였다.

1636년 29세 때에 병자호란을 만나 강화로 피란갔다가 이듬해 정축 정월 23일에 종동서(從同壻) 3인과 같이 순절(殉節)했다.

권순창

자는 성지(聖之)로 부(父)는 월포공(月浦公) 경기(儆己)요 순정(順正)의 동생이다. 충렬공(忠烈公) 순장(順長). 순열. 순후와 사촌간이다.

광해주 원년, 1609년 기유에 태어나 숙종 31년, 1687년 정묘 5월 24일에 졸하였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서 인조 5년 1627년 정묘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동 23년 1645년 을유에 빙고별좌(氷庫別坐), 이듬해 병술에 영국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 1등이 된 후 내외직을 거쳐 원주 목사(原州牧使)를 지냈다.

철원 부사로 재임 할때에 포도(捕盜)의 공으로 통정대부에 오르고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돈령부도정(敦寧府都正)을 거쳐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공은 일찍이 인조 13년, 1635년 을해에 우계(牛溪:성혼) 율곡(栗谷:이이) 양선생을 문묘(文廟)에 배향할 것을 발의하였고, 병자호란때는 강화에서 유병(儒兵)을 모집 편성하여 참전시켰다.

증 정부인 인동 장씨(권순창 부인)는 목사(牧使) 우한(遇漢)의 딸로, 강화성이 호적(胡敵)에게 함락됐던 정축 정월 23일 종동서(從同壻) 3인과 가티 순절(殉節)했다.

권상조(權相朝. 順長從孫)

충렬공(忠烈公) 순장(順長)의 종손(從孫)으로 자는 태모이다. 숙종 11년, 1685년 을축 9월 25일에 출생하여 직질은 통덕랑이 되었다. 영조 8년, 1732년 6월 3일에 졸하니 수는 48세 였다. 공은 효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세상에서 제일가는 효자다. 공은 어려서부터 어른과 같은 덕이 있으며 부모 병환에 시탕(侍湯)을 하면서 손가락을 잘랐고, 부모가 돌아가자 애훼(哀毁)가 지나쳐 소상에 이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 지극한 효성이 조정에까지 계문되어 정려가 내렸다. 〈끝〉

道山學叢書

十七世紀의 政治社會的 狀況과 晩悔·炭翁의 歷史的 位相

17세기 정치사회적 상황 만회 탄옹 역사적 위상

李 佑 成 (성균관대명예교수)

〈지난호에 이어〉

論道山之學

1. 仁政德治의 '王道'를 주장함

바로 그가 말한 것은 "大抵不順天理則天不祐矣, 不合人心則人不服矣, 天不祐, 人不服, 是非倒謬, 則民必有受其害者, 故民不堪命, 大亂因之以起, 或有緩急, 則蕩然不可收拾, 此必然之理也(同上)"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 견해는 매우 심오하고 사회 동란의 근원까지 간파해 낸 것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權氏 부자가 이미 당시 國弱民困, 사회혼란의 책임을 주로 전제군주에게 돌려 그를 '폭군'이라 꾸짖고 아울러 그 때문에' 湯.武 혁명'과 '官逼民反'의 필연성 합리성을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이조 봉건전제정치의 어둡고 심각한 위기를 똑바로 명시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그들이 제시한 '君爲民設' '民酬其勞'의 관점은 고대 儒家의 민본사상의 발전일 뿐만 아니라 민주사상의 특징까지 갖춘 것이기도 했다. 그들이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평등하고도 백성이 주체가 되는 관계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봉건윤리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근대 민주계몽사상의 맹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권씨 부자의 정치사상과 학설 가운데 진취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 중요한 일면이라할 수 있다.

네 번째는 '民胞物與'의 정치이상이다. 권득기·권시 부자는 또한 北宋의 大儒 張載가 '西銘'에서 말한 '民胞物與'의 관점에 근거해서 그들의 정치이상을 세웠다. 이는 바로 자연계의 天(乾) 地(坤)가 인간에 있어 부모와 마찬가지이니 모든 사람들이 한 동포 형제자매이고 모든 사물이 우리와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에 대한 존경과 자녀에 대한 사랑을 천지 인류 만물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천하국가의 책임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군주는 당연히 천지만물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천하만물을 염려하고 수신 치국평천하하여 그들의 '民胞物與'의 숭고한 정치이상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여겼다. 그들의 이러한 '民胞物與'의 관념은 이미 儒家의 仁愛사상의 확대이며 동시에 또한 동방 성리학의 '萬物一體' '理一分殊'사상의 변증체현이기도 했다. 이는 또한 그들이 제창한 '왕도'정치의 필연적인 귀착점이기도 했다.

2. 왕도정치의 실시방침

권득기·권시 부자는 왕도정치의 추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조정에 적극적인 실시방침을 많이 내놓았다. 우선은 "正乎朝廷"하려고 하였다. 권득기는 조정이란 "出治之所而四方之本('晩悔集' 殿策)"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왕도정치가 잘 실행될 수있는가의 여부는 곧 조정이 제정한 정책의 실시방침이 정확한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게다가 조정은 또한 전국적인 정치의 중심이며 명령을 발하고 시행하는 곳이므로 조정의 다스림이 좋고 나쁘거나, 바르고 바르지 않음은 국가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관건이 된다. 그는 또 조정의 네가지 폐단을 지적하였다. 하나는 선비의 풍습이 무너진 것이요, 둘은 백성의 풍속이 경박하고 나빠진 것이요, 셋은 관민이 화목하지 않고 黨政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요, 넷은 변경의 환란이 그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그 근원은 곧 "朝廷不正"에 있다.그러므로 "오늘날 증요한 것은" 곧 "조정을 바로 하는 것"이다. 권득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는 '朝廷不正'의 근원을 해결하면, 곧 조정의 네가지 폐단은 제거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는 어리석은 전제군주인 광해군에게 "말단의 일에 까다롭게 굴지 말고 먼저 근본을 좇으면, 원컨대 폐단을 막는데에 조급하지 말고 먼저 조정을 바로 잡을 것"(同上)을 청하였다. 권득기는 더 나아가서 "正乎朝廷"기 관건은 國君을 바로잡는데 있다고 여겼으므로, 그는 광해군의 병폐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세가지 방책을 내놓았다. "하나는 公道로써 大臣을 責하는 것이다."그는 엄정하게 지적하기를"지금 公道의 부진함이 심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東西銓選" "冬夏考績"에서 "庶獄之繁, 百司之務"에 이르기까지 "결코 공도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임금에게 "大臣을 신칙(알아듣도록 되풀이하여 훈계)하고 잡려하여 힘써 公道를 다하게 하고" 아울러 "正身率物, 以倡百官."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同上)"둘은 直道로써 近臣을 책하는 것이다. "그는 '直道'를 칭송하고 찬양하여 직언과 敢諫을 제창하였으며, 아울러 "直道라는 것은 국가의 명맥이다. 그러니 이와 같이 행하지 않으면 무엇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이로 인해 그는 임금에게 상소하기를 "근신을 신칙하여 힘써 직언을 다하게 하고 임금의 뜻을 거슬러가며 직간하는 자는 우대하고 보상을 하며, 입을 봉하고 있는 자는 멀리 내쫓고 물리치소서."하였다.(同上)〈다음호에 계속〉

安東權氏統合定期總會 案內

안동권씨통합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1년 6월 7일(火) 오전 11시 정각
□ 장소 : 국방회관 대연회장 (02)748-0707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①번출구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⑬번 출구(도보 5분거리)
□ 의안 : ①경과보고
②부의의안 심의
③통합예산안
※ 연락처 : 중앙종친회 : (0202695-2483~4

2011년 6월 1일
安東權氏中央宗親會 會長 겸 大宗會長 權 正 達